최세진, 말과 글속에서 진리를 찾다

정 찬 주
<소 설 가>

● 세진의 어린시절

최세진(崔世珍) 은 조선의 성종과 중종 때의 사람으로 중국어와 우리글을 체계적으로 깊이 연구한 음문학자이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역관을 지낸 중인(中人) 집안이었다. 역관이란 외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통역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세진의 할아버지는 물론 그의 아버지 최정발(崔正發) 도 역관을 지냈다. 세진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특히 중국어에 능통하였다. 당시 중국은 요즘의 미국이나 소련처럼 천하의 강대국이었다. 그러므로 훌륭한 역관이 되려면 중국어에 능통해야 하였다.

세진이 요즘 태어났더라면 어학실력으로써 학자대우를 받고 있을 것이다. 대학 강단에서 외국어에 대해서 명강의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당시 역관은 중인(中人) 으로서 양반 계급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예사롭게 받곤 하였다.

그래도 세진의 아버지는 세진에게 역관으로 지녀야할 필수적인 것들을 가르쳤다. 중국어와 역관의 예법 같은 지식과 실무였다.

세진은 어려운 한문도 열심히 익혔다. 어린 나이였지만 한문 속에 담긴 옛성현들의 가르침을 깨달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다.

이러한 세진의 자질을 그의 아버지가 모를 리 없었다. 아버지 최정발은 그런 때마다 비통한 기분이 들었다. 중인에 대한 양반들의 인식때문이었다. 세진의 아버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곤 하였다.

"세상이 잘못된 거야. 능력이 뛰어나면서도 중인계급이라고해서 천대받는 이런 세상은 바로잡아져야 해."

그러나 당시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전통이었다. 유교의 전통이 무너지고 평등한 세상이 오리라고는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다. 중인이나 천민들은 주어진 운명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뿐이었다.

● 과거에 급제하다.

좀더 철이 든 세진은 이문(吏文) 을 배우기에 이르렀다. 이문이

란 한문체로서 중국과 주고 받는 외교문서에 사용되는 아주 어려운 글이었다. 그래도 역관이 되려면 반드시 외어 숙달해야 하는 글이었다. 그러나 세진은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대로 척척 배워나갔다. 오히려 까다로운 질문을 자주 하여 아버지를 난처하게 할 때가 많았다.

마침내 세진은 역관에 합격하여 습독관으로 임명되었다. 이때부터 세진의 실력은 크게 평가를 받았다. 왕까지 그의 다재다능에 감탄하였다. 왕은 곧 그를 질정관(質正官)으로 임명하였다. 질정관이란 홍문관 소속으로 중국에 가서 옛글의 음운이나 의문나는 사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는 일 등을 맡은 일종의 임시직 벼슬이었다.

이때부터 최세진은 양반들로부터 흠모와 시기를 받았다. 한쪽에서는 최세진을 옹호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비방을 하였다. 그들은 입을 모아 왕에게 아뢰었다.

"역관이라는 중인(中人) 잡직에서 홍문관 질정관의 자리에 오른 예는 일찌기 없었사옵니다. 이는 세상의 질서를 흔드는 일이 될 수도 있사옵니다." "비록 중인이라 하지만 그 능력이 양반의 직책에 합당하다면 등용시킴이 옳은 줄 아옵니다. 더구나 홍문과 질정관의 자리란 세상의 질서와 상관없는 음운의 이치를 궁구하는 데다 임시 벼슬이 아니옵니까?"

내가 빠져든 이 학문은 결코 잡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천한 것이 아니야! 주학과 같이 하늘과 땅사이의 만물에 대한 진리탐구가 아닌데도,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를 캐는것도 아닌데도 이 연구속에는 살아있는 진리가 있어.

"비록 잡직에 있었다 하지만 능력이 뛰어나고 학식이 비범하니 전례에 구애받지 않겠노라." 성종은 최세진을 옹호했다. 일찌기 그의 학식에 놀란 바 있기 때문이었다.

왕의 신임에 힘을 얻은 최세진은 더욱 더 성실히 자신이 맡은 일을 처리해 나갔다.

마침내 최세진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특전을 받아 연산군 9년(1503) 에 실시한 별시문과(別試文科) 에 급제했다. 실력으로써 당당히 합격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방하는 신하들은 끊임없이 억지 주장을 폈다. 최세진을 파면시키자는 것이었다.

이런 일도 있었다. 연산군 10년 갑자사화(甲子士禍:1504) 때 처형된 이세준에게 최세진이 추천받은 일이 있었다하여 신하들이 그의 파면을 요구하며 들고 일어났다.

연산군은 성종이 그를 인정했던 것처럼 그의 재능을 잘 알고 있었으나 별 수 없었다. 일단은 그를 파면시키고 난 다음 기회를 보아서 다시 벼슬을 주어야 하였다.

때마침 중국에서 사신이 왔다. 왕을 보좌하고 있던 신하들은 부랴부랴 중국어를 통역할 사람을 찾았다. 그러나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짐을 보필하는 이 많은 대신들 가운데 통역해 줄 신하 한사람 없다니 이 무슨 망측한 일인가!"

왕은 신하들을 향해서 진노했다. 이제 할 수 없이 신하들은 최세진을 불러와야했다. 지금까지 그를 모함하고 시기하여 왔던 터라 선뜻 내키지 않았지만 별 수 없었다. 양반의 체통이 꺾이는 순간이어서 참담한 기분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중종 때에도 최세진은 왕의 신임을 받았다. 이때도 역시 최세진은 터무니없는 모함을 받아 파면될 뻔 하였다. 최세진이 상중에 소실을 얻었다고 모함을 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그의 이웃사람을 불러다 심문했지만 모두가 그 일은 상이 나기전의 일이었다고 증언하여주어 모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 과학적인 말과 글의 이치

"내가 빠져든 이 학문은 결코 잡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천한 것이 아니야! 주학과 같이 하

늘과 땅 사이의 만물에 대한 진리 탐구가 아닌데도,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를 캐는 것도 아닌데도, 이 연구 속에는 살아 있는 진리가 있어. 사람이 사용하는 말과 글 속에는 말일세!"

최세진은 음운 연구에 좀더 깊이 몰두하였다. 말과 글 속에 담긴 이치를 하나 하나 터득하면서 학문하는 즐거움을 더욱 느꼈던 것이다. 더구나 말과 글의 이치를 캐는 음운학은 주자학처럼 머리 속으로만 헤아리는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도움을 주는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학문이었다.

최세진은 신숙주 등이 편찬한 '사성통고'(四聲通告) 를 참고하여 '사성통해'(四聲通解) 란 음운학의 책을 펴냈다.

이 사성통해는 오늘날도 옛날 중국 한자 발음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국학자들에게 조차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한다.

한편, 최세진은 중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중국어 교본을 우리글로 번역하기도 하였다. 당시에는 중국을 여러 차례나 직접 가서 조사하고 연구한 최세진의 실력을 앞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또한 최세진은 한자를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한자 교본으로 '훈몽자회'(訓蒙字會)를 만들었다. 훈몽자회는 일종의 한자 학습서로서 3,360자의 한자를 사물(事物) 중심으로 갈라 한 줄로 음과 뜻을 적은 책인데, 지금도 옛글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

훈몽자회가 이처럼 사물 중심으로 한자를 배열한 것은 실용주의 정신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한다.

아무튼 훈몽자회 의 큰 가치는 우리 한글을 사용하고 있으며, 음과 뜻을 적어놓아 당시 아이들이 한자를 배우기 전에 우리글을 먼저 배우도록 했다는 데에 있다.

최세진은 음운학을 연구하면서 가끔 세종대왕이 음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훈민정음' 은 결코 만들어지지 않았으리라. 그러나 세종대왕은 음운학에 관심이 깊어 신숙주 등에게 명하여 '사성통고' 라는 음운학 책을 짓게 하였다.

그 '사성통고' 를 최세진은 다시 '사성통해' 로 펴내면서 세종대왕의 음운연구 정신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최세진의 정신은 또 실용적인 학문에 가치를 둔 영·정조 때의 실학파 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최세진의 업적이 어디 그 뿐이겠는가. 최세진이 역사에 없었더라면 우리글이 지금처럼 남아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바로 이 점이 음운학자 최세진을 더욱 위대하게 하고 있다.